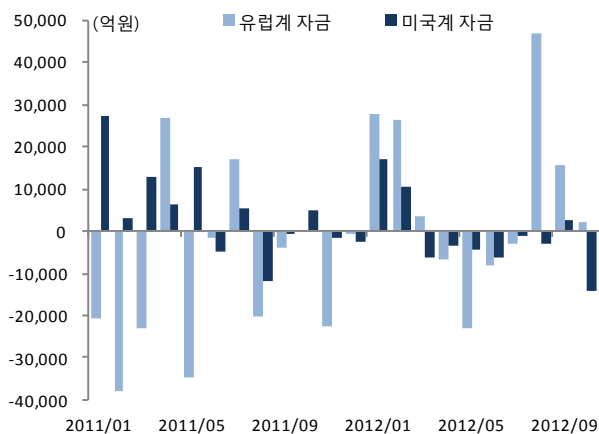


재정절벽 앞둔 변화와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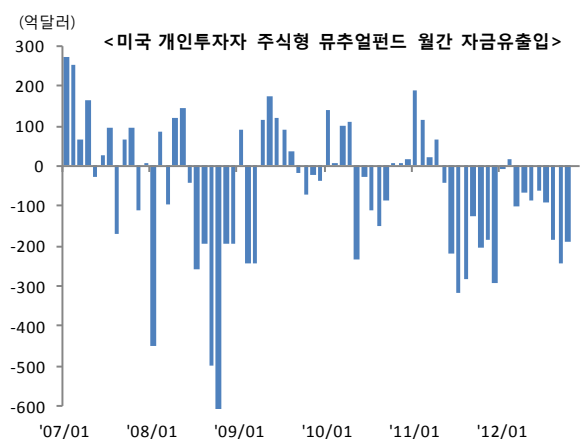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증시 상승을 제한하고 있음. 실제 지난주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지수, 고용지표 모두 시장 예상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 발표했음에도 S&P500 지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상황. 증시 이외에도 자금흐름, 기업 투자 등에서도 미국에서 다소 보수적인 흐름 관찰되고 있음

우선 국내 외국인 국적별 매매 흐름을 보면 지난 10월 미국계 자금이 1조 4180억원 대규모 유출됨. 규모로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금액.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중국 경기 반등 등 펀더멘털 개선 상황에서 과거 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이 재정절벽 이슈 앞두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 나타나고 있는 점 말해 줌. 이러한 점은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뮤추얼 펀드(주식형) 투자 역시 계속 유출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채권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 중. 미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 흐름도 유럽위기 진정과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 1] 국내 증시 국적별 자금 유출입액



[그림 2]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형 뮤추얼펀드 자금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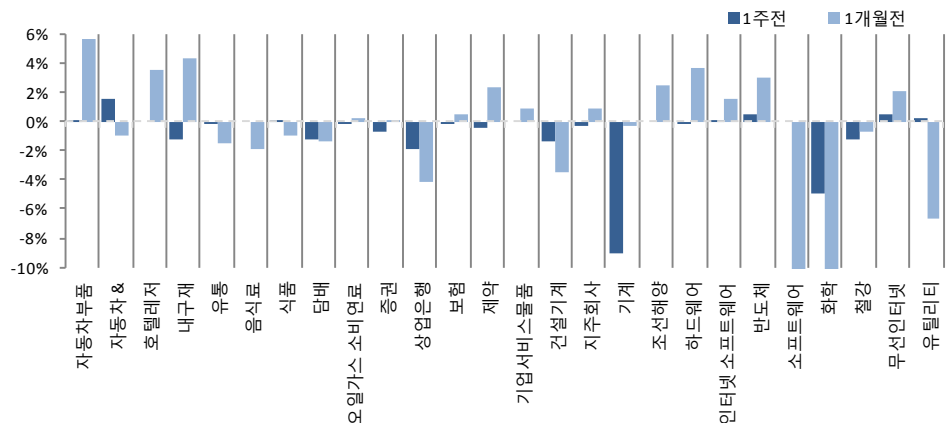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ICI,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최근 국내 주식에서의 외국인 매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듯. 다만 유럽계 자금의 지속적 유입과 아시아계 자금의 유입 등 감안하면 미국계 자금 유출의 충격은 일부 상쇄 가능할 것으로 예상. 특히 중국 경기 반등이 지속되고, 유럽 경기의 바닥이 확인된다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자금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의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을 듯

다만 현재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성장 동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멘텀 공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듯.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수에 베팅하는 것보다 펀더멘털이 양호한 업종,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 현재 코스피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흐름 보면 내구재, 제약 등 내수주와 하드웨어 중심의 IT 업종, 자동차업종 양호한 편임. 다만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기아차의 미국 소비자 보상 등 이슈가 아직 실적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향후 해당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 가능성 등 진행상황 지켜볼 필요 있음. 이런 측면에서는 IT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

[그림 3] MSCI KOREA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자료: Datastream,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상품마케팅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유정